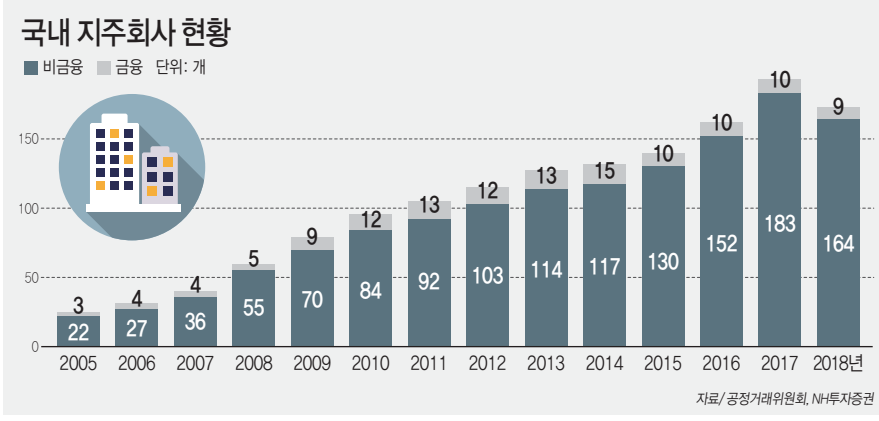
고개 든 주주행동주의… 내년 지주사 주가 날개단다

대기업 & 지배구조

〈下〉지주사 매력

주주환원 강화에 '배당' 최고매력
불확실성 완화로 주가 할인 해소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 그룹의 색깔을 바꾼다. 소버린과의 경영권 다툼 뒤 오너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려는 조치였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율을 70%까지 올리고 감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했다. 이후 LG, 한진, 두산 등 다른 대기업도 앞다퉈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이 후 한동안 지주사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멀리 있었다.

그런데 최근 지주회사에 다시 관심이 쏠린 건 '시간'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창업주, 혹은 창업2세대가 물러나면서 꺼져가던 지주회사 불씨가 살아났다. 2, 3세들에게 덩치 큰 회사의 지분을 물려줄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다.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지분을 팔아야 한다. 반대급부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리홈쿠첸이 대표적인 사례다. 창업주가 1938년생이다. 지주회사 부방과 사업회사 쿠첸으로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2세 이대희 대표는 부방 지분율을 18.3%에서 30.85%(11월29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기준)로 끌어올렸다. 샘표도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의 샘표 지분율이 기존 16.46%에서 현재 34.05%(2018년 반기보고서)로 2배 이상 높아졌고 장남 박용학씨 역시 2.36%에서 4.83%로 확대했다.

정치권에 부는 재벌개혁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재벌 개혁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에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도 개혁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기의 문제일 뿐 '지주사'라는 카드를 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리보다 높은 배당 매력

지주사의 가장 큰 매력은 배당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주주 환원정책을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KB증권에 따르면 SK, LG, GS, CJ 등 주요 지주회사의 지난 3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59.8% 가량이다.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은"배당시즌에 돌입했다"면서 "3분기 실적을 통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 GS, 롯데지주, 삼양홀딩스, 한화 등에 대한 비중을 늘려도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주회사들의 2018년 배당률 추정치를 SK는 10~15%, LG는 15~20%, CJ는 5~10%로 예상했다. 세 회사 모두 2020년까지 해마다 배당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과거와 같이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기업을 도와주기가 어렵게 된다. 결국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자회사로부터 자원을 회수해 경영성과가 좋은 다른 사업자회사로 투자재원을 집중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게 되면서 지주회사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가 측면에서 개별이슈도 많다.

LG그룹은 서브원 MRO사업 매각에 따른 규제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날이 머지 않았다. SK도 2019년 배당 증액 기대, 매력적인 비상장 자회사(SK바이오팜, SK실트론) 기업공개, 건전한 지배구조 이슈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배구조 불확실성 우려 완화

지배구조 개편과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할인도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다.

김동양NH투자증권 연구원은"다수의 기업집단들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정부는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법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되 규제강도는 완화시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규제하는 제도적 변화가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행동주의 펀드 활성화에 따른 주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회사의 가치,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지 않는 경영시스템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저평가된 지주회사는 행동주의 펀드로 하여금 지분 취득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향후 주주환원 증대 및 지분가치 할인율 축소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기관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주주 환원율이 낮은 주요 지주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 수는 67곳으로 국민연금 이외에도 사모펀드(PEF) 운용사 26곳, 자산운용사 22곳 등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앞으로 사모펀드(PEF)운용사 2곳, 자산운용사 5곳, 증권사 1곳 등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구조조정 대상기업 190곳… 中企 부실징후↑

금감원 '2018 정기 신용 위험평가'
대기업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늘어

〈부실징후기업 수 추이〉 (단위: 개사)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증감
세부평가 대상	대기업	6010	940*	602	631	631	-
	중소기업	1,609	1,934	2,035	2,275	2,321	+46
부실징후 기업	합계	159	229	208	199	190	△9
	C등급	65	97	84	74	53	△21
	D등급	94	132	124	125	137	+12
	대기업	34	54*	32	25	10	△15
	C등급	11	27	13	13	5	△8
	D등급	23	27	19	12	5	△7
	중소기업	125	175	176	174	180	+6
	C등급	54	70	71	61	48	△13
	D등급	71	105	105	113	132	+19

*수시 신용위험평가 포함(세부평가대상 368개사, 부실징후기업 19개사)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190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부실징후가 있는 곳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018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9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C등급이 53개, D등급이 137개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9개사가 줄었지만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대기업은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부실징후기업 수가 작년 25개사에서 10개사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실적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세부평가대상 기업의 실적은 더 크게 하락하면서 부실징후기업 수가 작년 174개사에서 180개사로 늘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과 기계가 각각 22개사, 20개사며, ▲도매·상품중개 18개사 ▲부동산 14개사 ▲자동차부품 14개사 등이다.

철강과 조선이 관련 산업의 수요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개사씩 늘었고, 도매·상품중개와 고무·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도 부실징후기업이 소폭 증가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조3000억원 규모다. 은행권이 1조8000억원으로 78.3%를 차지했다.

부실징후기업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할 경우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약 2995억원이다. 은행권의 양호한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하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적 위기에 빠진 기업의 조속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채권은행 등이 유동성지원, 경영애로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은행 간 협력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명품 소비, 20대가 78%… '가치소비' 트렌드 확산 한 몫

〉〉 1면 '경기불황에도…'서 계속

컨템퍼러리 패션도 매출 견인

신세계 백화점의 올해 1~11월 누계 명품 장르 연령대별 매출 신장률을 살펴보면, 20대가 78.6%로 매출 신장률이 가장 높다. 이어 30대가 16.7%로 뒤를 이었다. 명품 매출 중 20대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6%로, 2년간 3.6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소비자의 매출 비중은 전체 약 47%에 달한다.

마음에 드는 제품은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하는 20대의 소비 성향이 명품 구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큰돈을 아끼지 않는 '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컨템퍼러리 패션(브랜드)도 백화점 매출에 한몫하고 있다.

컨템퍼러리 패션은 가격대는 명품보다 합리적이되 트렌디하면서 품질 면에서 명품에 준하는 브랜드를 의미한다. '띠어리'·'폴로랄프로렌'·'DKNY' 등이 속한다.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의 컨템퍼러리 패션 매출이 최근 크게 늘었다.

컨템퍼러리 브랜드는 40~50대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를 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40~5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7.5%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성전자, 조직개편 발표 임박

전장사업·통신장비에 힘 실릴 듯
개편 일부 진행… 내일 발표 유력

삼성전자는 SK텔레콤과 손을 잡는 등 5G 장비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전경훈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부사장(왼쪽)과 박진효 SK텔레콤 ICT 기술원장. /SK텔레콤

삼성전자의 조직개편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전장사업과 통신장비 부문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내부에서는 이미 개편 작업 일부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최종 발표 시기는 13일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삼성전자가 통상적으로 인사 발표후 일주일 뒤에 조직 개편을 발표해왔던 데 따른 것이다.

IM부문 네트워크사업부는 일찌감치 개편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김영기 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아직 후임자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경훈 부사장이 유력하다고 봤다.

이는 5G 장비 사업에 힘을 실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전 부사장이 5G 연구 개발을 주도해왔으며, 차세대 사업팀을 이끌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한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장사업 부문이 유력한 개편 대상으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전장사업을 총괄할만한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5년 12월 전장사업팀을 신설했었다. 하지만 DS부문 소속 조직으로, 삼성전자 전장사업을 진두지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전장사업팀을 부문으로 격상하거나, 전장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영권 최고전략책임자 사장이 수장을 맡을 가능성도 대두됐다. 지난 CES 등에서 꾸준히 전장사업을 발표해왔던 것이 근거로 들어졌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말도 나온다. 전장사업이 아직 제대로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LG가 지난 정기인사에서 구광모 회장 직속 자동차부품팀을 신설하는 등 전장 사업 강화를 선언한 만큼, 삼성전자도 뒤따르지 않겠냐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LG전자 전장사업부도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이 429억원에 달한다.

반도체 생산 라인 개편설도 나오고 있다. 화성공장에 있는 낸드플래시 라인을 타공장으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파운드리 제조라인을 증설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발표 전까지 이해 당사자들이 활발하게 조율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